

프랑스, 빈곤 완화 위해 80억 유로 투입

프랑스 정부가 빈곤 퇴치를 위해 4년간 80억 유로(약 93억 5,500만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13일 파리인류박물관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21개의 주요 빈곤 개선책을 발표했다.

개선책에는 4년간 총 10조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빈곤지역 아동의 급식을 확대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직업교육을 받게 해 구직능력을 증대시키기로 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을 위해 보육원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프랑스에서 중간소득의 60% 이하를 버는 빈곤층은 총 900만 명가량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한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마크롱은 이를 '활동보편소득' (revenu universel d'activite)으로 명명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인 내용의 소득보장 제도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소득이 낮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3분의 1만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지나치게 복잡한 규정들 때문에 기초 생활보장혜택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에는 각종 기초생활수급 보장제도를 융합하고 간소화해 '활동보편소득' 이라는 이름의 통합 최저 생계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에 관련 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北, 올해 5~8개 신형 핵무기 생산 가능”

북한이 올해 5~8개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계속 핵관련 활동을 진행 중이지만 은폐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 NBC방송은 전날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3명 고위 당국자와 전직 관료 등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올해 5~8개 신형 핵무기를 제작했을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는 정상회담 전 한 해에 6개 정도를 생산했던 속도와 유사하다는 평이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 생산을 감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고 N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북한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 고위당국자들에 따르면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비핵화 선언 이후 최소 한 개 이상 핵탄두 저장 시설에 대한 진입을 막는 구조물을 만들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이 핵시설 밖으로 핵탄두를 옮기는 장면이 목격됐으며,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 전직 미국 고위 관리리는 “북한은 외국 정보 수집에 방해가 되도록 장비를 자주 이동시킨다.” 고 말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18년 초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하는 듯 보였지만 5~9개의 신형 핵무기를 만든 것 같다.”며 “그는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지 않았고 확실히 비핵화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핵활동을 해왔다.” 고 주장했다.

멕시코서 가스누출로 대피 소동 ... '절도 구멍' 때문

멕시코 중부에서 새벽에 가스 누출로 주민 1천3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30분께 중부 푸에블라 주의 주도인 푸에블라시에서 극심한 가스 냄새가 감지되자 당국이 비상상태와 함께 긴급 대피령을 발령했다고 밀레니오 TV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느라 한때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고 소방·구급 대원들은 병원에 입원한 190명의 환자를 안전 지역으로 이송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고 17개 학교에도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가스 공급 업체인 국영 페멕스는 해당 지역으로 연결되는 관의 밸브를 즉각 차단했으나 관에 남아 있던 가스가 수 시간 동안 누출됐다.

가스 누출은 가스 절도범이 낸 구멍 탓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에 몰래 구멍을 뚫어 가스를 훔치려다가 대량의 가스가 새어 나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멕시코에서 절도범들이 국가 소유의 송유·가스 관에 불법적으로 낸 구멍은 1만363개에 달한다.

뉴욕 맨하탄 백천 철학원이 20년만에 치노힐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 운명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미국 지구 회장)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남녀·초혼·재혼·사주·궁합·택일 전문
숫자운·색깔운·집터·사업터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909)347-0505



백천 선생 (白泉 先生)

- 1976. 한국역술인 협회 정회원
- 1977. 대한 경신연합회 중앙감찰
-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 2008. 한국역술인 협회 부회장
-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옴.

치노힐 15085 Calle Verano
Chino Hills, CA 91709
(909)347-0505

엘에이 3600 Wilshire Bl. #918
Los Angeles, CA 90010
(213)500-6363